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증서 및 메달 수여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선생님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만들고 또 이런 자리도 만들고 이런 자리에서 젊은 학생들이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선배 과학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된다는 믿음도 줬고, 이와 같이 우리 국민 모두 정부가 나서서 장학생도 육성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많은 조언도 줬습니다. 선배 과학자들의 노력이 아주 컸습니다. 이 점에 있어 아울러 치하 말씀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께 제가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면 이상하게 느끼겠죠?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야 하는데, 답이 되는 한 말씀 드려야 하는데, 언제나 답 같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돌아서면 그게 진짜 답인가 하고 자꾸만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당황하고 망설임이 있습니다.

과학은 결과적으로 국가 간 지배 관계를 만들기도 해

선배들이 말씀하고 여러분도 다짐했습니다. 100% 같은 말씀은 아니지만 애국심도 말씀했고 인간, 인류를 위한 어떤 도덕적 이상도 말했습니다. 그

래서 나라를 위해 인간을 위해 열심히 하라는 취지가 있었는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과연 아주 오래 전 처음 과학이란 것이 싹트던 시절에 그 사람들이 왜 과학 했을까? 과학의 동력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 왔습니다.

애국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호기심 아니었을까요? 신비에 도전해서 법칙을 찾아가는 호기심. 그리고 강요될 수밖에 없는 자연의 질서를 어떻게든 이치를 한번 알고 싶고, 나한테 불리한 환경을 한번 바꿔 보고 싶은 도전정신 아니었을까요?

밀천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과학을 활발하게 탐구하는 사회적 환경을 가진 나라는 부강해졌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우월한 기술을 통해 남의 나라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작은 단위에서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지배와 복종이라는 갈등이라는 게 우리가 가진 갈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배는 거부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도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의한 고통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에게 의한 고통을 훨씬 확대시킨 것이 과학기술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몽 보면 초강범 기술 캐내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땐 과학이 호기심 탐구가 아니라 국가의 수단, 방어의 수단 또는 남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과학의 자리가 거기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국력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은 과학기술로부터 나온 것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든 결과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이지요. 해외에 대통령 지위를 가지고 나가면 대우를 엄청나게 잘 받습

니다. 당신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놀라워합니다.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한 가운데. 대통령이 됐고 책임을 가지고 비교해 보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엄청난 기적을 이뤄낸 나라입니다. 야당일 때는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좀 잘 할 수 없는가 그런 마음으로 정치했는데 대통령 되고 보니, 대접 받아보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냥 고맙습니다. 해외 교민 만날 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기업인들한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식민지, 해방국, 원조 받던 나라 중 원조 주고 다른 나라로부터 성공 비결 가르쳐 달라는 요청 받고, 한국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파견하고 젊은이도 가고, 선생님도 가고 공무원도 가고 발전전략 계획하는 국가계획에 한국 사람이 가서 도움을 줍니다. 지원을 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교육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 국민들이 각 분야에서 잘 했지만, 그 중심에 과학 발전이 있지 않구나 생각합니다. 다 서로서로 의지하고 같이 환경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지요. 과학자만 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만, 어딘가 정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나가는 계기들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기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시 이러한 점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승부란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긴 사람에게는 무한히 영광이지만, 패배로 인해 지배받는 사람에게는 무한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리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어 승부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승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크게 의지해야 될 곳이 정치 사회 다른 어떤 영역보다 과학기술이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거는 기대가 아주 큼니다.

다만 노벨상 받으려고 연구하지 말고 연구하다 보면 받는 수도 있다 말씀 하셨듯이 과학자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탐구를 위한 탐구를 해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옛날 선배들은 그런 여유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회적 환경이 탐구를 위한 탐구를 할 만큼 여유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부자 됐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든 애국심으로 하든 경쟁 위해서 하든, 주름살 펴기 위해 하든, 날아가는 자동차 위해 탐구와 도전 그 자체에 매력 느끼고 하든, 어쨌든 다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 발전 위해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종 32년 재위했는데 재위 동안 세법 바꾸는데 27년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물도 정비하고, 특히 중국의 음악을 한국의 음악으로, 중국 과학을 한국 과학으로 바꾸고, 32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문명을 꽃피었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가 잘 되면 그 나라의 과학이 잘 되는 것도 맞는가 보다 그런 생각 들어 저도 책임을 무겁게 느낍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5년 갖고 책임지면 얼마나 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5년만은 아닙니다. 다음의 5년이 이 5년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지금 현재 제가 다니면서 여러 나라 지도자들로부터 대우 받는 밑천은 참여정부가 마련한 밑천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 꽃피우고, 지금 와서 돈 만드는 토대 위해서 대접은 제가 받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라고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 5년 동안에도 여러분이 맘껏 연구하고, 그렇게 한국의 과학문명이 계속 꽃피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전심전력 다할 것입니다. 그 동안 몇 가지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고 연구

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학이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는 역할 할 수 있기를 기대

몇 가지 해답이, 뭔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합니다. 과학문명이란 것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핵무기의 공포 위에서 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해서 과학문명 발전을 중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 문명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을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무기가 왜 두려운가. 폐기할 수도 있고 터뜨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핵무기 가진 사람, 국가가 두려운 것이지요. 국가가 사람을 지배하니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가진 사람이 두려운 것이지만, 개별 관계로 보면 관계가 두려운 것입니다. 이 친구가 가진 것은 위험하고 이 친구가 가진 것은 괜찮을 수도 있다. 그 판단 누가 해야 하나 이런 많은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학의 법칙을 탐구하고, 여러분은 과학하고 뒤치다꺼리는 정치인이 다 하고. 정치인만으로는 그 뒤치다꺼리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문제도 함께 풀어가면서 과학이 나와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는 역할까지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연구하는 사람은 항상 발견하는 재미로 살더라도, 그러나 모두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탐구해서 해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사랑과 관용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 토대 위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논리로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과학자, 항상 책임에 대해 고심하는 과학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철학적으로는 확실한 답 갖고 있지 못합니다. 존재 의미, 가치, 뭘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 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매일 사랑하고 일하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삶이 함께 풍요롭고 아름답고 즐겁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여해 준다면 더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